



| 저자 | **김남식 박사**

김남식 박사는 일본 와카야마에서 출생하였으며, 고신대학교, 단국대학교 문리대, 중앙대학교 대학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교육을 받았고, 미국 리폼드 신학대학원(Reformed Theological Seminary)에서 선교학을 전공하여 선교학 석사와 선교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텔렌보쉬 대학교(University of Stellenbosch)에서 선교학을 전공하여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김 박사는 미국장로교(PCA)에서 목사장립을 받고 미국 윌밍톤 한인 장로교회, 인천 청농교회, 서대문장로교회, 카바난트 일본인 교회에서 시무하였다.

「기독교신문」 편집국장과 주필을 역임하였으며, 지금은 계간전문학술지 「상담과 선교」를 간행하고 있고, 주간 「크리스찬 타임」 논설고문과 각종 방송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국제성서화운동본부 고문, 일본복음선교회 고문, 중화복음선교회 회장으로 선교사역에 헌신하며, 또 일본 교베신학교 초빙교수, 캐나다 Trinity Western University의 Northwest Baptist Seminary 초빙교수, 미국 킹스대학교 방문교수로 사역하고 있다.

저서로는 「한국장로교신학사상사」를 비롯한 82권의 저서와 「칼빈주의 예정론」 외 38권의 역서가 있다.

김 박사는 한국장로교사학회 회장으로 기독교역사의 정립에 노력하고 있으며, 목양문화회 회장, 총신문화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또 「출판문화상 저술상」과 「목양문화상」을 수상하였다.

그의 저서 「40년의 벽을 넘어, 보수신학자와 진보운동가의 역사대화」가 '2006년도 문화관광부 우수도서'에 선정되었다.

그는 다양한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신학자, 전도자, 저술가, 언론인, 시인 그리고 문명비평가로서 끝없는 사역을 하고 있다.

Faith of Martyrdom

by
Nam Sik Kim

Bethany Book House
Seoul, Korea
2018

오늘날과 같은 '안락의 시대'에 '순교'를 이야기 하는 것은 시대 당착적 발상일까? 이른바 번영신학, 기복신앙, 천민자본주의가 한국교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때에 '적은 무리들'의 목소리이지만 순교신앙을 외친다.

'순교자의 피는 기독교의 씨다' (*Samguis Martyrum Semin Christianarum*)라고 한 터툴리아누스(Tertullianus, 160?-222? AD)의 말처럼 순교자의 피가 한국교회 성장의 '씩어진 밀알' (요 12:24)의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기억하며 한국교회의 영광 뒤에 가리워진 고통의 역사를 기억하자는 것이다.

순교에 대한 논구와 함께 저자가 쓴 순교에 대한 신문 사설과 한국 주요 교단의 순교자 선정 규정을 부록으로 게재한다.

먼저 간 순교자들의 그 자취를 따라가며 이 땅에서 하나님
의 나라를 확장하려는 꿈을 함께 나누기 위해 이 소책자를 간
행한다. 순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2018. 초가을에

혜강 김남식

머리말 5

서론 11

I. 순교에 대한 신학적 접근 13

1. 순교의 과정 / 16

2. 순교예의 경의심 / 21

II. 순교의 의미 24

1. 순교자 선정 원칙 / 39

2. 순직자 선정 원칙 / 45

III. 한국교회의 순교의 역사 50

1. 수난의 탐구 / 51

2. 수난의 역사 / 53

IV. 한국 교회의 수난의 특징 59

1.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복종 / 60

2.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 / 61

V. 순교신앙의 확산	64
1. 성경적 신앙의 생활화 / 64	
2. 자발적 절제의 실천과 섬김사역 / 66	
결론	68
1. 수난의 의미 탐구 / 71	
2. 순교자 유가족 돌봄과 순교자 연구 / 72	
부록	75
1. 왜 순교를 말하는가? / 77	
2. 순교신앙을 계승하자. / 82	
3. 주요 교단의 순교자 선정 규정 / 87	
참고문헌	101

순교신앙

서론

I. 순교에 대한 신학적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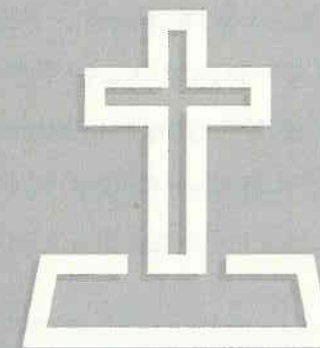
II. 순교의 의미

III. 한국교회의 순교의 역사

IV. 한국 교회의 수난의 특징

V. 순교신앙의 확산

결론



Faith of Martyrdom

순교에 대한 예수교장로회 총공회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²⁵⁾

‘평소 생활 속에 작은 순교로 살다가’, ‘신앙을 포기하면 살 길이 있음에도’, ‘주님 위해 원하고 원함으로 죽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것을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²⁶⁾

첫째, 신앙 이유로 인한 죽음이다.

① 명확하게 말씀을 지키기 위해 죽는 경우—신사참배를 거부한 주기철 목사의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순교의 대부분이며 판단이 쉽다.

② 주님을 사랑함으로 살 길을 버리는 경우—피난길을 거부한 손양원 목사의 경우이다. 과충이나 무모함의 자해 자살과 참 순교를 구별하기 어렵다.

둘째, 자기 선택이다.

① 생사 중 선택—살 길을 버리고 죽을 길을 택한 경우—인민군 협조를 거부한 경우이다.

② 탈출이 막힌 경우—공산화 후 목사라고 처형한 경우. 6·25 점령지 순교의 대부분 경우이다.

셋째, 죽는 순간의 자세이다.

25) 이영인, “순교자 정의에 관한 자료”, 2018.

26) 총공회에서는 순교자에 대한 협의적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① 평소 순교를 소원하고 준비해 오는 신앙—순교 전의 생활이 이미 순생. 고난이 없을 때 이미 주님과 말씀으로 십자가 생활—대부분 성자들의 경우이다.

② 죽는 현장에서 그 소원이 변치 않은 경우—준비는 했지만 실제였는가. 준비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후회한 경우—6·25 때 체포된 순교자 대부분의 경우이다.

장로교의 역사신학자 심창섭은 “순교는 고귀한 만큼 순교자 선정을 위한 엄격한 규정과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²⁷⁾ 그의 논의를 인용한다.

신약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순교는 스테반의 경우를 들 수 있다(행 7:54-60). 스테반의 죽음은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서 핍박자들에 의해 돌로 죽임을 당한 경우이다. 스테반의 순교 현장에는 증인이 있었다. 증인이 바로 바울이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행 8:1).

요한계시록 2장에 안디바가 죽임을 당한 기록이 나온다. 심창섭은 안디바가 죽임을 당한 이유를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뭇 밍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13절)라고 기록하고 있다. 성경은 이때 안디바를 충성된 종이라고 명명하고 순교

27) 심창섭, *op. cit.*

둘째, 그 죽음은 복음 증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

셋째, 복음과 진리를 반대하는 개인이나 집단에 의한 죽음이어야 한다.

즉 순교는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그리스도에 대해 공적으로 증거하고, 이를 확증하기 위해 주어진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한 사람의 죽음의 의미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무엇 때문에 왜 죽었는가를 고찰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도나티스트와의 논쟁의 와중에서 기술한 시편 35편 23절,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를 주석하면서 “(죽음)이라는 형벌이 (사람을) 순교자로 만들지 않고 그(죽음의) 이유가 순교자들 만든다”(*Martyrem non facit poena, sed causa*)고 했다.³¹⁾

31) “men are made martyrs not by the amount of their suffering, but the cause in which they suffer” Augustine, *Letters*, 89.2; *New Catholic Encyclopedia*, 312 루터는 이 말을 재세례파에 대해 비판하면서 사용한 일이 있다.

1. 순교자 선정 원칙

지금까지 연구한 자료를 기초로 순교와 순직 기준 설정을 위한 가이드 라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첫째 요건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죽임을 당해야 한다. 다양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고수하다 죽임을 당함
-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증거하다 죽임을 당함
- 그리스도를 믿는 바른 신앙(교리)을 고수하다 죽임을 당함

2) 둘째 요건은 박해의 결과로 타의에 의해 죽임을 당해야 한다.

- 기독교인이라는 단순한 이유로 죽임을 당함
- 예배 중 집단으로 죽임을 당함

3) 셋째 요건은 순교에 걸맞는 죽음의 형태들을 참조해야 한다.

수난은 진리를 지키고자 할 때에 일어난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진리를 대적하기에 그 진리를 지키려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이 당연하다. 어둠의 세력들은 빛의 자녀들을 박해한다.

수난은 지난날의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도 존재하고 앞으로 있을 비극의 사건이다. 우리에게 수난이 온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진리 편에 굳게 서야한다.

2. 순교자 유가족 돌봄과 순교자 연구⁷³⁾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를 통하여 돌보아 주고, 여러 가지 혜택들을 준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수난 당한 사람과 그 유가족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들은 관심과 사랑을 보여야 한다. 그들의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대신한 것이다. 그 유가족을 돌보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책무이다.

우리들은 설교나 강의 등에서 순교자들에 대하여 많은 이

야기를 한다. 그러나 이들의 가족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순교자의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인하여 학교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최빈민층의 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 우리는 이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행동을 개교회에서나 교단 또는 기독교계 연합으로 실천해야 한다.

‘순교자 기념관’이 몇 곳 있기는 하지만 자료들이 너무나 빈약하다. 그들에 대한 전기를 간행하고 자료들을 모아 역사 연구의 기틀로 삼아야 한다. 우리들은 이러한 일에 무관심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⁷⁴⁾

이러한 사업은 개인 차원에서는 어렵기에 교단이나 교계 연합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 전통을 전승할 수 있어야 한다. 순교자 기념 유적지가 자라나는 세대의 교육의 장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계2:10).

73) *Ibid.*, p. 363.

74) *Ibid.*, p. 364.

- 기독교연감, 1957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57.
- 김남식, “순교신학과 김익두 순교담론”, 황해노회 주최 세미나 강연논문, 2012. 4. 기독교신보 2012. 5. 29.
- , 김정복, 소록도의 순교자, 서울: 도서출판 베다니, 2018.
- , 몰로카이의 성자 다미안, 서울: 도서출판 베다니, 2013.
- , 순교한 사람들: 6·25 한국전쟁의 순교자들, 서울: 도서출판 베다니, 2017.
- , 김남식의 책읽기 1, 서울: 도서출판 베다니, 2017.
- , 신사참배와 한국교회, 서울: 새순출판사, 1990.
- , 한국기독교수난사, 서울: 도서출판 베다니, 2008.
- , 한국장로교회사, 서울: 도서출판 베다니, 2012.
- , “한국교회의 개혁, 이렇게 하자”, (사)예장연 특별포럼: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2017. 9. 28.
- 김남식 간하배, 한국장로교신학사상사 I, 서울: 도서출판 베다니, 1997.
- 김남식 김동완, 40년의 벽을 넘어: 보수신학자와 진보운동가의 역사 대화,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 김문제, 십계명과 십자가 3, 서울: 세종문화사, 1977.
- 민경배, 한국기독교교회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3.
- 박영창, 정의가 나를 부를 때, 서울: 신망애사, 1970.
- 박용규, 한국기독교교회사 1,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4.
- 웨마 주제별 종합 자료사전, 서울: 성서연구사, 1997.

- 심창섭, “순교자와 순직자 선정을 위한 성경적 역사적 고찰”, 총회역사위원회 주최 제1차 학술연구세미나, 2017. 5. 25.
- 안용준, 사랑의 원자탄, 서울: 신망애사, 1972, 제2판.
- , 태양신과 싸운이들, 서울: 세종문화사, 1972, 제2판.
- 이근삼, 기독교와 신도국가주의의 대결, 이근삼 전집 9, 서울: 생명의 양식, 2008.
- 이덕주, 아펜젤러 순직기념과 자료집 1, 충남 서천: 아펜젤러 순직기념사업위원회, 2013.
- 이상규,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서울: SFC, 2016.
- 이영인, ‘순교자 정의에 관한 자료’, 2018.
- 이희승, 『국어대사전』, 서울: 민중서원, 1981, p. 1738.
- 폴리카르푸스, 『편지와 순교록』, 하성주 역주, 왜관: 분도출판사, 2000.
- 크리스천투데이, 2007. 2. 27.
- 한국가톨릭사전, 서울: 한국가톨릭대사전편찬위원회, 1992.
- K. S. Latourette, *A History of the Expansion of Christianity*, 7 Vols, New York: Harper & Row, 1944-45.
- Kun Sam Lee, *The Christian Confrontation with Shinto Nationalism*, Philadelphia: The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66.
- Nam Sik Kim, *A Study on the Mission Principles and Theolog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Jackson Mississippi, 1985.

도서출판 베다니는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범”이란 원리를 바탕으로 기독교적 세계관의 정립과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 사역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신 것을 본받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094

惠江新書(4)

순교신앙

지은이 • 김남식

내는이 • 김성혜

내는 곳 : 도서출판 베다니

등록번호 : 제1-1363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9길 20(역삼동)
(02) 567-2911 / FAX 567-2912
홈페이지 : www.kicm.org
이메일 : kicm69@hotmail.com

2018. 10. 25 제1판 1쇄 인쇄

2018. 11. 1 제1판 1쇄 발행

© Bethany Book House, 2018

값 10,000원

* 파본은 바꿔드립니다.

* 저자의 허락없이 어떤 형태로든지 일체의
복사와 복제를 금합니다.

ISBN 978-89-8305-094-6 03230

혜강 김남식 박사의 연구논문들

國家とキリスト教 信仰

日語版 | 문고판 반양장 | 90면 | 카바난타書店

2007년 4월, 일본 복음주의신학회(서부)에서 발표한 논문으로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한국의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그 방향을 제시하였다.

國家神道の危險性と信教の自由

日語版 | 문고판 반양장 | 50면 | 카바난타書店

일본의 민족종교인 신도(神道)의 특성과 한국에서의 신사 참배 강요, 저항운동을 다룬 연구서, '간사이지방 2011 신양수호대회' 강연 논문이다.

일본 기독교 교파 형성의 역사적 탐구

문고판 반양장 | 156면 | 도서출판 베다니

일본의 기독교 전래와 교파 형성 그리고 발전을 역사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일본교회사 연구의 기본 자료이다.

순교신앙

문고판 반양장 | 104면 | 도서출판 베다니

순교란 무엇이며, 순교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는 한국 교회의 중요 과제이다. 이 영역에 대한 연구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순교신앙'에 대한 종합적 연구 논문이다.

로마서 13장의 정치학

문고판 반양장 | 150면 | 도서출판 베다니

교회와 정치권력의 관계에서 로마서 13장의 해석과 적용은 중요한 요소가 된다. 로마서 13:1-7의 주경적 해석과 한국교회에서의 적용을 다룬 심도 깊은 연구서.